

집-농촌주거계획안

김지혁+박준규 / 울산대 건축학과
Designed by Kim Chi-Hyeok & Park Chun-Gu

이야기 하나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주거 건축이 기능적이란 말은 아주 죄악 같은 말이다. 아주 기능적인 휴식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능의 반대적인 의미는 반기능이다. 이 반기능이란 단어는 낭만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주택에서는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의 주택평면, 우리가 이땅을 살아 가면서 배치한 가장 편안한 배치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불편한 배치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서구의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상의 차이일 것이다. 한국의 건축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는 공간의 건축이라 생각한다. 이 각각의 공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 공간을 돌아 다니게 되고, 이 공간에서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 것이다.

이야기 둘

어릴적 우리 동네에서는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네 동생, 누구네 삼촌,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따지다 보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고 친척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동네는 어릴 적부터 내가 자라온 곳인데, 이젠 낯설은 사람들에게 동네를 빼앗긴 느낌이다. 마을 뒷동산에는 무자비하게 자꾸만 늘어나는 아파트를 바라보면 동네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이 마을, 이 땅은 우리가 살아온 곳이다. 이 마을의 주인도 우리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였으면 한다. 그리고 나도 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싶다.

